

국내 건설사 3곳, 정비사업 '1조 클럽' 달성... 실적도 합격점

현대, 4200억 규모 사업 시공권 대우, 정비사업 경쟁력 확보 사할 GS, 서문지구 등 누적 수주 1조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올 상반기에 정비사업 '1조 클럽'에 가입하는 등 호실을 나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비사업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대우·GS 등 '1조클럽'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개발 등 정비사업 1조클럽에 가입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다. 우선 현대건설은 최근 4200억원 규모의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면서 올해 누적 수주 1조원을 돌파했다.

전북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달 2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512표 중 431표(득표율 84.2%)의 찬성표를 얻은 현대

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1월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2280억원)을 시작으로 ▲마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사업(504억원)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1906억원)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1813억원) ▲용산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731억원)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1440억원)을 수주한데 이어 이번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4246억)을 수주하며 1조2919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달성한 실적을 웃도는 수준이다.

대우건설 역시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4501억원) ▲노원구 상계2구역(2865억원) ▲경기 남양주 진주(1024억원) ▲경남 창원 신월3구역(1881억원)을 수주해 총 1조2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의 84%에 달하는 규모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정비사업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2017년 2조 8744억원, 2018년 5259억원, 2019년 8660억원, 2020년 8728억원 등 3년째 1조원 미만 수주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주택건축사업본부 내 도시정비사업설에 '리모델링사업

팀'을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대우건설이 5개월 만에 정비사업 1조원 클럽에 가입하면서 지난 2017년(2조8744억원) 실적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GS건설 역시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GS건설은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2196억원)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5554억원) ▲서울 문정 건영아파트 리모델링(2207억원) ▲밤섬현대아파트리모델링(933억원) 등 4건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액 1조89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에 몰두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발주 감소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

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 등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각 건설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그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 급증한 2294억원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이 같은 기간 6.09%에서 11.83%로 5.76% 포인트 개선됐다. 영업이익률 증가폭은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컸다.

현대건설은 지난 1분기 대비 21.54% 증가한 200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4조1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었던 해외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올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7% 증가한 1350억원, 매출은 5.03% 오른 2조7750억원을 기록했다.

GS건설은 큰 폭으로 떨어진 매출에도 영업이익의 증가를 보였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MZ세대 사로잡는 '메타버스'

게임 넘어 소비·문화 활동까지 즐긴다

이용자 80% 이상 10대 메타버스 마케팅 붐물



BGF리테일X네이버제트 업무협약식 /BGF리테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속 주인공은 하루의 시작을 VR 고글과 헤드셋이 결합된 '햅틱슈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가상현실 오아시스(OASIS)에 접속해 사람들을 만난다. 2018년 개봉 당시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SF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가공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가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 단순히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과 문화활동 더 나아가 업무 활동까지 한다. 유통업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현실(VR)보다 한단계 진보된 개념으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제

트(Z)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유명하다.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거나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용자의 80%가 10대이며 현재 2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패션업계는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메타버스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제페토 안에 자체 매

장을 운영,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찌는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구찌 빌라'를 제페토에 오픈했다. 구찌 빌라에 방문하면 아바타를 통해 구찌 의상을 시착할 수 있다. 물론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네이버제트와 협약을 맺고 오는 8월 제페토 안에 CU를 오픈한다. 이용자들은 제페토 내 인기맵인 한강공원에서 CU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명 엔터테인먼트도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대중 앞에 첫선을 보인 걸그룹 '에스파'는 실제 멤버들과 아바타가 공존하는 8인조 그룹으로 눈길을 끌었다. YG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와 JYP엔터테인먼트의 이치(ITZY)는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허윤홍 GS건설 대표,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GS건설은 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허윤홍 대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를 릴레이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대표가 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GS건설

대한 다짐과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팔호' 인증 사진촬영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자극 세기에 밝기 변화 '전자피부' 기술 개발

강문성·김도환 교수 연구팀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밝기가 민감하게 변하는 전자피부 기술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문성 교수(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연구팀과 김도환 교수(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연구팀이 누르거나 당기는 등 힘의 변화를 빛의 미세변화로 응답하는 '스마트 발광형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피부란 온도, 습도, 압력 등 감지 능력을 가짐으로써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는 탄력있고 부드러운 전자 장치를 말한다.

기존 압력을 감지해 빛을 내는 등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자피부는 압력의 감지장치와 이에 대응해 빛을

내는 발광장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가 요구됐다. 또 압력이 가해지는 위치를 미세하게 구분하기 위해 감지장치와 발광장치를 높은 집적도로 배치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되던 스마트 촉각인터페이스 기술은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사용자 입력에 반응해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이는 피드백을 제공해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 등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연구팀은 바닷물의 흐름이 만드는 자극 등에 반응해 발광세기가 달라지는 해양 플랑크톤에 착안해 신축성 있는 고분자 소재에 전기화학적 발광소재를 적용한 전자피부를 설계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기업 80%,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부실'

미흡률 24.7%... 19.8%p 감소

기업들 10곳 중 8곳 이상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정관이나 배당 등 비재무사항에 대한 기재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 점검대상 2602개사 중 643개사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률은 24.7%로 전년 대비 19.8%포인트 감소했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2019년은 신규 점검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의 논의 내용'에 대한 기재 누락이나 부실 기재로 미흡률이 높았다"며 "미흡사항 지도 및 개정내용의 숙지 등으로 작년

에는 전체 미흡률이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이다.

비재무사항은 점검대상 2391개사 중 2021개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됐다. 미흡률은 84.5%로 전년보다 38.2%포인트나 높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